

東谷齋舍의 공간구성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Dong-gok Jaesa

유인호*, 하헌정**
In-Ho Yoo*, Heon-Jeong Ha**

<Abstract>

This study is for getting sacrificial service, discussing process of sacrificial rituals and understanding the composition of space in Dong-gok Jaesa. For these things, we're arranged for exact blueprint through actual survey and analyzed the architectural features. Dong-gok Jaesa has features which show centripetal space organization with strong closing sparsely. This is intended for sincerity during ritual which is processed without obstruction. This is a mixed form which is unified both straight dwelling and *Jung Dang Hyeop Sil* type. And this is for all functions which is necessary for Jaesa architecture in only one building. And this is used with organizing technique for space utility with connection of compartments and various enlargement and partition. Through these things, even though it is not a big Jaesa, it shows that this is Korea traditional composition of space technique according to several purposes.

Keywords : *Space Composition, Building layout, Measuring unite of scale, Jaesa*

1. 서 론

한 시대의 건축은 당대(當代)의 산물로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의 전통건축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그 시대의 사회상과 자연적 환경 등 문화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 유교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건축은 한국 전통건축의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조선왕조는 관제화 성격의 유교적 체제로 사회조직의 정비를 실현해갔는데 그러한 과정

에서 제도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서원과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는 가묘(家廟)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교적 시설물이 전국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민족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되는 효(孝)와 관련하여, 조상과 가족 구성원 간의 인륜(人倫)관계를 규정하는 행위이며 근본으로 인식되는 조상을 섬기는 행위에 관련한 사상은 그 정점에 도달해있었다. 이러한 사상이 건축적으로도 표현되어지는데 사당(祠堂)이라는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크게는 재사(齋舍)와 같은 건축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재사건축은 그 명칭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재실(齋室), 재사(齋舍), 재궁(齋宮), 재각(齋閣)

* 정회원, 영남이공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工博

** 교신저자,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工博
E-mail : hjha@kumoh.ac.kr,

* Full Time Instructor, Dept. of Architecture, Ph.D.,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Ph.D.,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등으로 불리어지는 유교건축으로 시제(時祭)시제수를 장만하고 제례절차를 논의하고 후손들의 숙박을 위해 마련된 건축적 공간이다. 각 지역에 따라서는 문중의 모임이나 서재(書齋)같은 강학기능을 하는 곳도 있다.

재사건축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건축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의 독특한 유교문화와 건립 목적의 차이에 따라 지역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지역은 사림과의 본거지로서 씨족(氏族) 마을이 발달했으며 유교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재사건축의 규모와 수효도 많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기존의 재사건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역별, 시기별로 유형을 분류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재사건축에 대한 건축적 특성을 규명하고 정리하여 일반화하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자칫 개별 건축물이 갖는 조성적 특성이 간과되거나 이형(異形)적인 것으로 취급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재사건축물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소재한 동곡재사(東谷齋舍)를 선정하여 실측을 통해 정확한 도면을 제시하여 기초적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또한 실측도를 토대로 공간 구성적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 대상 재사건축만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구성과정

2.1 연혁 및 배치현황

동곡재사는 수곡(樹谷) 권보(1709~1778)의 유업을 추모하기 위하여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 24번지에 세워진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5량 가구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재사건축이다. 최초 건립 시에는 초가 6칸으로 건립되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1923년에 8칸의 건물로 다시 지은 것이다. 최근 까지 재사와 후학양성의 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훼손이 진행되는 상태이다.

권보의 본관(本貫)은 안동이며 자는 이응(李凝)이고 호는 수곡(樹谷) 또는 일지헌(一枝軒)이다. 그는 연산군때 갑자사화(甲子士禍)로 피화(被禍)된 화산(花山) 권주(權柱 1457-1505)의 9세손(世孫)으로 숙종 35년(1709) 병곡(屏谷) 권거(1672-1749)의 3자(子)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품성이 단아하고 맑았으며 지기(志氣)가 영민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부친에게서 가학(家學)을 전수 받으면서 부터는 엄숙한 자세로 독서에 매진했다. 그는 부친이 모함을 받아 체포되는 등 곤경을 겪는 것을 보고는 스스로 안자(顏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문밖출입을 자제하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매진하였다. 평생을 처사(處士)로서 작고 누추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족하는 자세로 살았고 정조 2년(1778)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¹⁾



Fig. 1 동곡재사 전경

대정산(大井山) 서편자락에 자리 잡은 동곡재사는 안동권씨 수곡파 문중이 모여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2개의 사주문이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재사로 들어오는 문이며 다른 하나는 재사에서 산에 모셔진 선영으로 출입하는 문이다. 재사의 우측 처마쪽에 동곡재사의 현판이 걸려 있으며 마루 안쪽에는 6세손 권준희(權準羲)가 쓴 기문(記文)이 걸려있다.

이 재사는 안동지방의 전형적인 처사형 사림의 유업을 추모하는 재사이면서도 문중자제의 강학을 위한 서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복합된 용도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樹谷集 6권 3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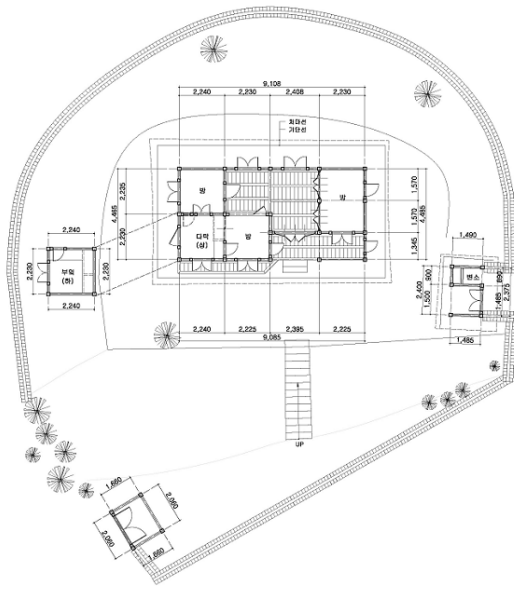


Fig. 2 동국재사 배치도

2.2 영조척(營造尺) 분석

한국 전통건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건(重建), 중수(重修)를 거듭하면서 건물이 새로 건립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철거되어 소멸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치형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공간형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공간 형태의 변모는 기존의 공간구성 의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성 의도를 부가(附加)시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건물들의 군집(群集)으로 형성되는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의도 및 수법도 그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史料)나 기록의 부실은 전통건축 연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국재사 또한 다른 전통건축들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조영시기(造營時期)를 보여주는 기록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중건, 중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각 건물에 적용된 영조척(營造尺)의 분석은 건물의 창건 또는 재건된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보완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첫째, 건물이 건축될 당시 통용되던 영조척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것과 둘째, 주칸(柱間) 거리를 결정하는데 정수척(定數尺, 完尺)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고, “건물의 상부 구조물이 소멸되더라도 초석은 인위적으로 파헤치지 않으면 원래의 위치를 지키는 장점”²⁾이 있기 때문이다.

영조척에 대한 연구는 문헌의 기록내용을 고찰하고 그것을 건립시기가 분명한 실제의 건축물에 적용하여 검증하여 왔는데, 1920년대 이후 영조척의 검증은 米田美代治, 關野 貞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³⁾ 근래에는 윤장섭에 의하여 연구⁴⁾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건립 시기나 사료가 불분명한 건축물에 역으로 적용하여 배치의 변화내용을 파악한 연구들이 있다.⁵⁾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동국재사의 각 건물들을 실측하고 척도분석을 통하여 주칸(柱間) 거리에 적용된 영조척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칸(柱間) 거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목조로 된 한국 전통건축은 기둥의 하부와 상부간의 직경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우주(隅柱)의 안쫄림 기법이 쓰인 경우, 어느 부위가 주칸(柱間)의 기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건물이 오래 되어서 뒤뜰림이 생긴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목조가구식(木造架構式)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기둥 위에 놓이는 평방(平枋)은 정해진 크기에 맞게 미리 마름질해 두었다가 기둥을 세운 다음, 결구(結構)되는 것이므로 평방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계획 당시의 주칸(柱間) 거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김동현의 “주칸(柱間)의 실측은 원칙적으로 포칸(包間)을 재어야 한다.”⁶⁾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영조척(營造尺) 분석

2) 손승광, 임충신, “통도사 전각들의 영조척도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1호 통권3호, 1986, p.69

3) 米田美代治, “朝鮮上代の建築研究”와 關野 貞, “朝鮮建築と美術” 참조

4) 윤장섭, “한국의 영조척도”, 건축학연구, p.63-82, 1985 참조

5) 영조척을 분석하여 배치형태의 변화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공간구성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로는 하현정, “한국 佛寺의 건축 공간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문, 1996. 하현정, 유인호, “병산서원의 배치형태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1호, 2003. 하현정, 신현익, 안영배, “관룡사 가람배치 및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4호, 1987 등이 있다.

을 위한 주칸(柱間) 거리 실측은 평방중심칸(平枋中心間) 또는 포간중심칸(包間中心間)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영조척 분석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 삼국에서 나타난 각 영조척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각 시대별로 사용된 영조척의 범위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시대별 營造尺度

영 조 척	사용시대	범 위 (cm)	곡 척 비
漢 尺	낙 랑	22.1000 ~24.4000	0.7294 ~0.8050
高 麗 尺	삼국시대	33.6000 ~35.6328	1.1089 ~1.1760
唐 尺	통일신라	29.5765 ~29.8400	0.9760 ~0.9848
高麗營造尺	고 려	30.7850 ~31.4000	1.0160 ~1.0360
朝鮮營造尺	조 선	30.9600 ~31.1600	1.0218 ~1.0284
曲 尺	1902 년 이후	30.3030	1

주칸(柱間) 거리에 대한 영조척 분석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크기가 정수척(定數尺)으로 정해졌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즉 특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듈(Module)의 개념으로서 정수비(定數比)가 가장 적용되기 용이하다. 그러나 건물의 평면과 입면의 구성에는 비례의 개념이 개입될 수도 있으므로, 1/2척 또는 1/4척, 3/4척 등의 적용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칸(柱間)과 전체길이에서 정수척(定數尺)으로 도출되는 영조척을 우선으로 하며 해당되는 영조척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1/2척까지 범위를 넓히고 여기서도 특정 영조척이 도출되지 않으면 1/4척 또는 3/4척까지 검토 범위를 넓혀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측면 보다는 전면의 척도 분석 결과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는 주칸(柱間)과 전체길이에서 오차의 크기를 검토하였고 정수척(定數尺)에서부터 4분척까지 도출되는 허용오차의 범위는 해당 영조척의 1/10척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건축에서는 건축물의 전, 후, 좌, 우면의 전장(全長)이 모두 다른 경우가 허다하므로, 모든 면을 척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조척 분석은 당해 건물이 현 위치에 최초로 건립된 시기를 추정하기 위

함이므로 중건(重建) 또는 중수(重修)되었을 수도 있는 상부구조의 역사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Table 1.에서 보듯이 시대별로 사용된 영조척은 정확한 크기로 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도 약간씩 변하고 단위 기준척(基準尺) 역시 오차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영조척 분석은 각 영조척의 범위를 몇 개의 단위구간(계급)으로 나누어 각각의 계급값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조척을 분석한 기준은 Table 2와 같으며 Table 3은 이러한 분석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동곡재사에 대한 분석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 동곡재사 營造尺度 분석기준

營造尺	범 위 (cm)	階 級 數	單 級(mm)
唐 尺	29.5765~29.8400	4, M ₀ ~M ₄	0.8783
朝鮮營造尺	30.9600~31.1600	3, M ₀ ~M ₃	1.0000
曲 尺	30.3030	.	.

Table 3. 동곡재사 營造尺 분석결과

	실측 치수 (cm)	당척(尺)				조선영조척(尺)			곡척 (尺)	
		M1	M2	M3	M4	M1	M2	M3		
전 면	주 간 거 리	224.0	7.57	7.55	7.53	7.51	7.24	7.21	7.19	7.39
		222.5	7.52	7.50	7.48	7.46	7.19	7.16	7.14	7.34
		239.5	8.10	8.07	8.05	8.03	7.74	7.71	7.69	7.90
		222.5	7.52	7.50	7.48	7.46	7.19	7.16	7.14	7.34
전 면	908.5	30.72	30.63	30.54	30.45	29.34	29.25	29.16	29.98	
후 면	주 간 거 리	224.0	7.57	7.55	7.53	7.51	7.24	7.21	7.19	7.39
		223.0	7.54	7.52	7.50	7.47	7.20	7.18	7.16	7.36
		240.8	8.14	8.12	8.09	8.07	7.78	7.75	7.73	7.95
		223.0	7.54	7.52	7.50	7.47	7.20	7.18	7.16	7.36
후 면	910.8	30.79	30.70	30.61	30.52	29.42	29.32	29.23	30.06	
우 측 면	주 간 거 리	134.5	4.55	4.53	4.52	4.51	4.34	4.33	4.32	4.44
		157.0	5.31	5.29	5.28	5.26	5.07	5.05	5.04	5.18
		157.0	5.31	5.29	5.28	5.26	5.07	5.05	5.04	5.18
우 측 면	448.5	15.16	15.12	15.07	15.03	14.49	14.44	14.39	14.80	
좌 측 면	주 간 거 리	223.0	7.54	7.52	7.50	7.47	7.20	7.18	7.16	7.36
		223.5	7.56	7.53	7.51	7.49	7.22	7.20	7.17	7.38
		446.5	15.10	15.05	15.01	14.96	14.42	14.38	14.33	14.73

동곡재사의 척도분석 결과, 당척(唐尺) M4에서 모든 면의 주칸(柱間)거리와 전장(全長)이 완척(完尺)을 보이고 있다. 우측면의 일부 주칸에서 4분척(分尺)의 완척을 보이고 있으나 좌측면의 2칸 구성이 우측면에서는 2칸반으로 조정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출된 당척

6) 김동현, “古建築調査法”, 『韓國古建築斷章 下』, 통문관, 1977, p.254

은 이 건물이 건립된 시기와 부합되지 않는 영조척이다. 따라서 이 건물은 19세기에 건립되었던 소실되기 이전의 재사와 동일한 위치에 당초의 초석을 바탕으로 중건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3. 건축 구성적 특성

일반적으로 재사의 건축구성은 향교나 서원과는 달리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남지방의 경우는 향교의 명륜당과 같은 소위 ‘강당형’ 건축으로 일관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중앙으로 대청이 위치하고 그 양측으로 방 두 개가 꾸며지는 ‘一자형’의 단순한 구조가 재사의 본체로 건립된다. 규모는 정면 3칸, 4칸, 5칸 등 문중의 경제력이나 세력 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남지방에서도 호남지방의 재사건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자형 강당이 본체로 들어서고 그 전면에 대문과 함께 담장이 둘러지는 단순한 ‘강당형’ 재실도 상당수 보인다.⁷⁾ 또한 일자형 강당 전면에 규모가 큰 ㄷ자형의 건물이 부엌, 대문간, 고방, 방, 마루 등으로 들어서는 즉 중앙으로 중정을 두는 재실도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⁸⁾ 또한 완전한 ㄷ자형 재사건축의 유형도 보이는데 이는 몸체가 ㄷ자형으로 구성되고 그 전면에 2층 누각이 문간 기능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호남지방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보이지 않는다.⁹⁾

동곡재사는 경사면을 정리하여 다진 터에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재사 건물을 위치시켰다. 건물의 외곽은 기와를 올린 흙 담장으로 둘러쳐 영역을 경계 짓고, 외부에서 재사로 들어오는 문과 재사에서 뒤편 산에 위치한 선영으로 출입하기 위해 2개의 사주문(四柱門)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2 참조)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인 8칸 규모로 통칭되고 있으나 엄밀하게 보면 2칸으로 된 좌측면과 2칸반으로 된 우측면이 일자형 평면으로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2칸의 마

루방을 중심으로 우측에 2칸 방을 두고 마루방과 우측 방 앞에는 반칸의 퇴칸을 두어 뒷마루를 설치하였다. 마루방 좌측에는 전면에 1칸의 온돌방이 있고 후면에는 1칸의 마루가 가운데 마루방과 단을 지어 연하고 있다. 그 좌측에는 1칸의 온돌방이 있고 전면 1칸에는 부엌을 하부에 두고 그 위에 다락방을 두었다. 건물 좌측 전면 2칸 앞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전체적인 평면 형태에서 이 건물은 재사와 주소(廚所)가 하나의 건물로 통합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Fig. 3. 참조). Fig. 3의 동곡재사 평면구성에서 B부분에 해당하는 우측의 3칸만을 보면 일자형의 중당협실형¹⁰⁾ 재사건물이 변형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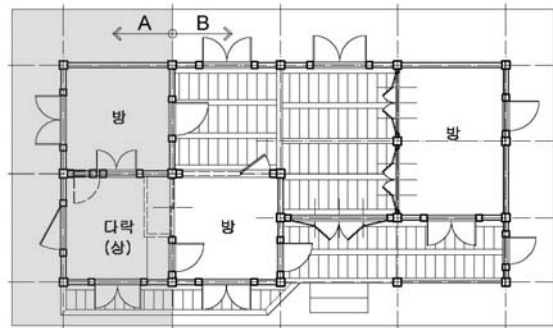


Fig. 3 동곡재사의 평면구성

즉, 일자형 중당협실형에서 전면에 퇴칸을 두고 우측 방을 퇴칸까지 내밀어 그 후면에 마루를 둔 형식이다. A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좌측 1칸에 있는 부엌과 온돌방은 주소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간의 확장 측면에서도 우측 3칸은 필요에 따라 전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좌측 1칸과 구별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동곡재사가 갖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실들 간의 연결과 다양한 확장 및 분절을 통해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변성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 공간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루방의 경우 전면 뒷마루에 연하여 사분합들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뒷마루와 외부로 공간이 연속될 수 있게

7) 사천재사, 추원재, 영모재, 을수재, 양양재, 신흥재, 함포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8) 대지재사, 고성이씨재사, 소등재사, 서현재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9) 청주정씨 재사, 화회류씨 재사, 운천재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10) 중당협실형은 재실 등의 평면형식 중 중앙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영모재, 만남재, 성산서당 등이 이 형식에 속한다.

구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Fig. 4의 ①의 방향으로 보면 사분합들문이 닫혀 있을 때와 열려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내외 공간이 연출되며 시각적으로 재실자에게 다른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Fig. 4, Fig. 5 참조).

또한 우측에 연해 있는 2칸 온돌방과는 2쌍의 사분합들문으로 경계 지워서 필요에 따라 문을 닫으면 각각 마루와 방으로 구획되고 사분합들문을 개방하면 두 실이 통합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Fig. 4의 ②방향, Fig. 5 참조).

동곡재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마루방은 좌측 후면에 있는 마루와 연결되어 있어서 평면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좌측 마루가 한단 높게 구성되어 있다(Fig. 4의 ③방향, Fig. 5 참조). 이것은 공간의 구성상 두 실이 개방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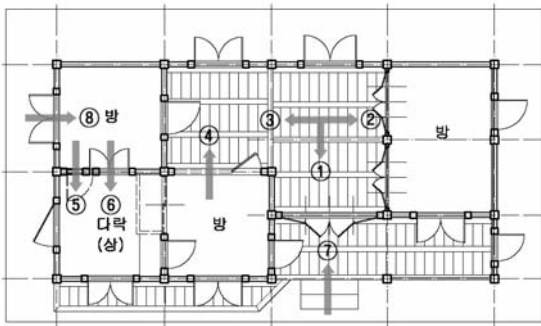


Fig. 4. 동곡재사의 공간구성

있기는 하지만 재사건축의 특성상 공간의 위계가 필요했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고자 좌측 마루를 한단 높게 구성하여 시각적 연속성은 유지시키되 단 차이에 의해 두 공간이 구획되어 영역이 분절되도록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테두리가 명료하게 구획되어 있어 각 영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과 공간적,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시키며 물리적 접근도 쉽게 하여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좌측 마루와 전면의 온돌방 사이의 벽도 분명한 벽의 모습으로 되어 있으나 고정된 벽이 아니고 들문과 같이 벽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 외여단이문을 열어 엮고 벽을 들어 올리면 후면 마루와 전면 온돌방이 완벽히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Fig. 4의 ④방향, Fig.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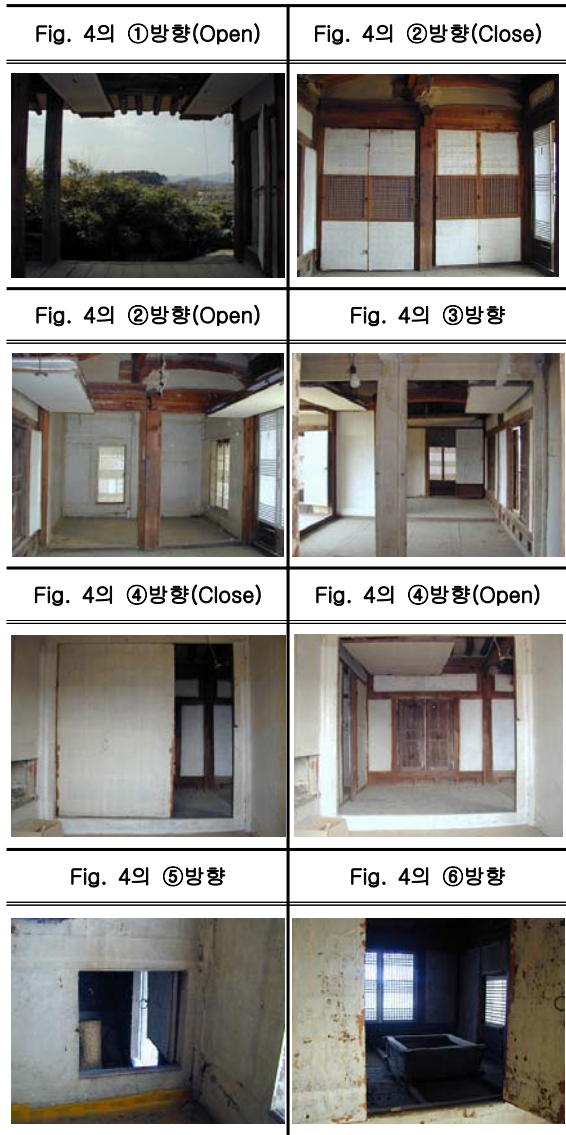


Fig. 5 동곡재사의 공간구성 전경.

이와 같이 동곡재사는 마루방과 그 좌우의 공간을 다섯 개로 분절된 공간 즉, 마루방, 마루, 좌우 온돌방, 뒷마루로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합 또는 분절될 수 있어서 다양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성 공간의 구성을 통해 비록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재사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간을 큰 공간으로, 좁은 공간을 넓은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목적에 따라 그 기능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수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소의 역할을 하는 건물 좌측 2칸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각 실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좌측 후면의 온돌방과 전면 하부에 있는 부엌 사이에는 조그만 외여단이 격자문을 두어서 부엌에서 방으로 직접 음식을 들일 수 있게 하였고(Fig. 4의 ⑤방향, Fig. 5 참조) 부엌 상부의 다락방과 온돌방 사이에는 쌍여단이 격자살문을 설치하여 온돌방에서 다락방으로 직접 연결될 뿐 아니라 다락방을 통해 뒷방의 채광까지 해결하고 있다(Fig. 4의 ⑥방향, Fig. 5 참조). 다락방은 중앙 마루방 좌측 온돌방에서도 외여단이 격자살문을 통하여 연결된다. 그러므로 건물 좌측의 2개의 방과 다락방, 후면 마루는 각각 인접한 두개의 실에 모두 연결되는 연속된 공간을 보이고 있다.

공간의 전개방식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평면구성이 폐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각 실을 연결하는 문들을 개방하면 전체 건물이 완전히 개방되어 하나로 연결되고 각각의 실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개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사 입구에 해당하는 전면 기단 위 뗏돌에서 보면(Fig. 4의 ⑦방향 참조) 뗏마루와 마루방을 구획하는 사분합문, 마루방과 외부로 연결된 후면 판장문을 개방하면 건물 전면 → 뗏마루 → 마루방 → 건물 후면으로 재사건축물의 전·후면이 완전히 개방되어 공간이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되어짐을 알 수 있다(Fig. 4의 ⑦방향, Fig. 6 참조).

또한 재사의 좌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Fig. 4의 ⑧방향에서 보면 건물 좌측면 → 좌측 후면 온돌방 → 후면 마루 → 마루방 → 우측 2칸 온돌방 → 건물 우측면이 각 실을 구획하고 있는 개구부만 열려지면 완전히 개방되어 내부 공간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을 포함한 내·외부 공간이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Fig. 4의 ⑧방향, Fig. 6 참조).

이와 같은 공간 구성이 가능한 것은 재사건축의 특성상 의식이 거행될 경우 경건함이 타유해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폐쇄적인 공간 구성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방법 중의 하나인 폐쇄와 개방의 서로 다른 속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의도의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속성이 하나의 요소에 동시

에 나타나면서도 서로의 성격을 침해하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서로 교호(交互) 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졌으며 이는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의 결과라 판단된다.



Fig. 6. 동곡재사 공간의 연속성

이와 같이 동곡재사는 재사와 주소가 통합된 특이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의 확장 및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폐쇄와 개방이라는 상반된 속성의 이중성이라는 공간구성 수법이 내재되어 있는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전통건축 가운데 시제(時祭) 시 제수를 장만하고 제례절차를 논의하고 후손들의 숙박을 위해 마련된 재사건축에 관한 연구이다. 안동시 풍천면에 소재한 동곡재사를 선정하여 실측을 통해 정확한 도면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동곡재사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곡재사는 공간적으로 강한 폐쇄성과 함께 구심적(求心的) 공간구성을 보인다. 이것은 의식이 거행될 경우 경건함이 타 유해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동곡재사는 일자형의 주소와 중당협실형의 재사건물이 변형되어 하나로 통합된 형식이다. 이것은 하나의 건물에 재사 건축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결과라 판단된다.
- (3) 동곡재사는 실들 간의 연결과 다양한 확장 및 분절을 통해 공간 활용의 가변성을 높이는 구성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록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재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따라 그 기능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 (4) 동곡재사는 이중성이라는 공간 구성수법이 내재되어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속성이 하나의 요소에 공존하면서도 서로의 성격을 침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교호(交互)하는 공간적 수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5) 척도분석결과 동곡재사는 현재의 건물이 건립되기 전에 소실된 이전의 건물과 동일한 위치에 당초의 초석을 바탕으로 중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 고 문 헌

- 1) 김지민, *대한건축학회지*, 28, 117, (1984)
- 2) 손승광·임충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 1, (1986)
- 3) 이왕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 5, (1986)
- 4) 이왕기·박명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 1, (1988)
- 5) 최지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 1, (1990)
- 6) 홍승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 1, (1990)
- 7) 김동인, 김일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 5, (1990)

(2008년 8월 20일 접수, 2009년 8월 21일 채택)